서구청장 재선 막판까지 예측불허

3파전 혼전…오늘 자정까지 철야유세 부동층 잡기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선거 막판까지 각 후보들 간 혼전이 펼쳐지고 있어 예측 불허의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선거일인 27일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선거 기간 종료일인 26일 자정까지 철야 선거운동을 벌이며 막판까지 부동층 잡기에 전념할 계획이다.

25일 광주 서구청장 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각 후보 캠프는 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후보 선거캠프에서 벌인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김선옥 후보와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 무소속 김종식 후보 등이 '3파전'을 벌이며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 박금자 후보도 다른 후보에 비해 뒤늦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주민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선거 막판 선두권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각 후보 캠프에서도 이 같이 판단하고 선거 마지막날까지 유권자 일대일 접촉 등을 통해 막판 부동층 흡수에 전략을 세워놓고 철야 선거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김선옥 후보 측은 최근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중앙당의 총력 지원 등으로 김 후보의 박빙 우세를 점치고 있다.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민주당 표심이 점차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민주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단일후보인 서 후보 측의 조직력도 만만치 않고, 무소속 김종식 후보도 장·노년층을 상대로 꾸준하게 조직을 다져온 만큼 투표함을 개봉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보궐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선거 당일 양 후보의 조직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선거일 날씨 등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구청장 재선거가 평일(27일)에 실시되고 선거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25~30%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선거 양상을 띠지만, 각 후보들 모두 나름대로 지지층을 다져온 만큼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등을 고려하면 연령별로는 김선옥 후보는 20~40대층에서, 서대석 후보는 20~30대층과 일부 노년층에서, 김종식 후보는 50~6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연령별 투표율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김선옥 후보 측은 투표율이 25% 미만일 경우 민주당 조직표가 움직일 경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서 후보 측도 서구내 민노총 소속 노동자, 전교조 교사, 보건의료 노조원들이 결집하고 있다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식 후보 측은 50~6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조직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7일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란 기상 예보가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방정가 관계자는 "투표 당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유권자들, 특히 노인들의 투표율 저조가 예상된다"며 "한파에 따른 투표율 저조가 당락을 가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일쌀 보내기 시민 모금운동

'북한 수해동포 지원을 위한 통일쌀보내기 광주시민운동본부'는 25일 광주시 동구 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여름 폭우로 6만4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지역민들에게 제안했다.

/나명주기자 mjna@

생생 자치 광주시 간부회의

"연말이라고 예산 펑펑 쓰지 마라"

지난주 민선 5기 첫 국정감사, 세계김치문화축제 등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광주시는 이번 주부터 기존 사업 마무리와 국회를 상대로 한 내년 예산 추가 확보 등 일상업무에 복귀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실·국에서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기한이 정해진 사업은 서둘러 추진하고,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등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25일 오전 광주시 간부회의에서 충장축제 성과를 설명하는 동구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충장축제가 비교적 성공적이나 구도심재생과 연결되지 못한 점,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며 "앞으로 상인들을 상대로 아름다운 가게, 청결한 가게, 친절한 가게 등 시상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권장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주문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일본으로 해외투자유치 순방에 나서는 강 시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계김치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24일 밤에도 가봤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 상인들이 너무 좋아했다"며 "내년에는 뉴욕 한복판에서 김치문화축제를 갖는 것도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몽땅 쓰려고 필요도 없는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데 앞으로 그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연말에 예산을 남긴 실과는 시장 표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천정배 깃발' 들고 국민 평가받겠다"

광주 찾은 천정배 최고위원 차기 대권 도전 뜻 밝혀

전남 신안 출신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진출, 지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 의원은 25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대적 역할과 소명에 충실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천정배의 깃발'을 들고 국민속에서 평가받겠다"고 강조,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전당대회에서 5위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는 정치적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인 것 같다.

▲정치를 시작한지 15년 만에 처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정치 입문 이후 단 한 번도 줄 세우기와 계파정치를 한 적이 없다. 이번 전당대회도 변변한 조직도 없이 치렀으나 천정배의 원칙과 소신을 평가한 지지자들의 힘으로 지도부에 진출하게 됐다.

만약, 내가 도입을 주장했던 '국민직선제'가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방식으로 관철됐다면 국민적 흥행은 물론 개인적인 성적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반대 '호남+ 개혁' 집권 믿는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에 비해 폭넓은 정치적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인정한다. 하지만 호남과 개혁의 정체성을 지켜오며 정치했다. 그동안 내 자신보다는 정권 창출과 정권재창출, 정치개혁 등 시대적 요구과 사명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천정배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하겠다. 보다 폭넓게 소통하겠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시대적 화두를 실현하겠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물론이다. 하지만 이전에 민주당을 비전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들어 내겠다. MB 정권의 실정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를 이끌고 민주개혁세력의 연대에도 적극 나서겠다.

-그동안 한미 FTA 비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 FTA 협정안에는 역진방지조항, 최혜국대우 등 국가의 공공정책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많다.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20~30% 진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천 의원과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대강의 지류, 지천을 정비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것은 4대강을 죽이는 것이기에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보를 설치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이를 허물어야 할 것이다. 영산강도 마찬가지다.

-여대 야소의 현실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 등 여권에서 이번 예산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촛불 집회와 같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당에 주어진 당면 과제는 '과감한 변화'다.

▲민주당은 당명과 법통만 제외하고 모두 변화해야 한다. 집단지도체제라는 점에서 변화의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도부 모두가 변화와 쇄신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의 '전략적 투표'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략적 투표 이면에는 호남 출신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지 않느냐는 패배 의식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호남민의 정치 의식을 폄하하는 것이다. 오히려 나를 포함,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민은 그동안 출신 지역보다는 민주개혁 후보로의 적합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와 전국의 개혁세력이 함께 했을 때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는 '호남 플러스 개혁'의 공식이다. 이는 꿈을 현실로 이뤄냈고 나는 이러한 불변의 진리를 믿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